

‘나훔’

1. 저자 및 기록 연대

- 본서의 저자 -> 선지자 ‘나훔’ 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음.
 - 1 절을 시작하면서,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 이라고 성경이 스스로 증언!
 - ‘나훔’이란 이름의 뜻 = ‘위로자’
 - 참고: ‘나훔’과 비슷한 이름 => ‘느헤미야’ =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or ‘여호와의 위로’
 - 본서에서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음!
 - 학자들은 이 ‘엘고스’를 유다 남쪽 지방의 한 성읍인 ‘시므온 지역’에 속한 마을로 추정.

- 본서의 기록 연대
 - 우선 ‘나훔’이 활동한 시기는 B.C.633-612 년경으로 추정.
 - B.C.722 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
 - B.C.700 년 앗수르 왕 ‘산헤림’은 ‘니느웨’를 수도로 선언!
 - B.C.612 년 ‘니느웨’ (앗수르의 수도)는 바벨론에 의해 함락!
 - B.C.586 년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
 - ‘나훔’서의 기록은 앗수르가 멸망한 B.C.612 년 직후로 판단 (본서의 중심 내용을 참고)

2. 본서의 중심 주제와 내용, 핵심구절

- ‘나훔’서의 중심 주제!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을 선언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함!

- 중심 내용: 크게 2 부분으로 구성.
 - 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성품)을 선언: 1 장 1 -8 절
 - ②.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증거
 - a)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1 장 9-15 절
 - b)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2 장
 - c) 니느웨의 비참한 최후(멸망) : 3 장

- ‘나훔’서의 핵심구절: 1 장 15 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3. ‘요나’서와 ‘나훔’서의 관계

=> ‘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vs ‘공의와 거룩, 심판의 하나님’

- ‘요나’서는 ‘나훔’서가 기록되기 최소 100 년전에 기록!
=>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증거를 믿고 일시적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
=> 그러나 ‘요나’가 죽고 시간이 흐르자,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온갖 이교도의 악한 풍습을 따르고 우상숭배를 행하면서, 완악하고 잔인하게 북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켰고, 이후 B.C.701 년 남유다까지 침략하며 하나님을 대적함!!
- 결국 이와 같은 저들의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신 후, 바벨론과 메사에 의해 니느웨를 멸망시키심!!
=> 여기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 깨닫고 믿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왜 자손들에게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을까? 라는 아쉬움!

❖ 나훔 1 장,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진노!’

1. 서론 : 1 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 본서의 저자와 주제가 분명하게 선포되며 말씀이 시작되고 있음!
- 참고로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 ‘니므롯’에 의해 시작된 도시로(창 10:11-12), 이 후 앗수르 제국의 수도가 됨.
- 선지자 ‘나훔’에 대해서는 그가 ‘엘고스 사람’이란 기록외엔 알려진 것이 없음.
- 참고: 히브리 전승집 ‘예언자의 생애’ => ‘엘고스’는 유다 시므온 지역의 마을로 소개.

2.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 (2-8 절)

1)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4 가지 성품! (2-7 절)

(1) 질투/ 보복/ 진노하시는 하나님! (2 절)

- 2 절,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자에게 질투/보복/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 자기를 거스르는 자 +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심!!
=>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질투/보복/진노하심!!
- 참고로 인간의 질투/보복/진노 vs 하나님의 질투/보복/진노의 차이가 있다면?
①. 인간의 질투와 보복은 항상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감정에서 출발!
②.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선하심에서부터 출발!
③. 따라서 인간의 질투와 보복은 항상 또 다른 질투와 보복으로 나타나게 됨!!
④.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항상 선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결과로 마무리 됨!

(2) 의로우신 하나님! (3 절 A)

- 3 절, ‘여호와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①. 하나님은 죄인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

=> 곧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 자비의 하나님!

②.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

=>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

- 참고로 종종 우리는 악한 자들이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호위호식’하며 잘 사는 것을 볼 때, 실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있음!
-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고 계신 것일 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란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항상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할 것!

(3) 전능하신 하나님! (3b-6 절)

- 선지자 ‘나훔’은 다양한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선포하며, 장차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깨닫게함!

①. 여호와와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같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 (3b)

②. 그는 바다와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 (4a)

=> 그 결과로 a) ‘바산과 갈렙이 쇠하고, 레바논의 꽃이 시들게 됨!’ (4b)

=> 그 결과로 b) ‘산들이 진동 + 작은 산들이 녹게 됨!’ (5a)

=> 그 결과로 c)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게 됨!’(5b)

③.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6 절)

=> 곧 아무도 이와 같은 권능의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음!!

=>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짐!’ (6b)

(4) 선하신 하나님! (7 절)

- 7 절,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①.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선하신 하나님!

②. 따라서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며 주께 피하는 자들을 알아주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심!

2) 이와 같은 심판자 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함! (8 절)

- 8 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 ①. 우선 ‘범람하는 물’에 대한 두 가지 해석!
 - a. 범람한 강물처럼 ‘니느웨’ 성으로 몰아칠 바벨론과 메사의 연합군들을 가리킨 말!
 - b. 말 그대로 니느웨 성을 둘러 가는 티그리스 강이 범람할 것을 예언한 말!
 - ✓ 개인적으로 첫째 견해를 따르지만, 실제 앗수르 멸망을 기록한 역사를 보면, 바벨론이 앗수르를 침략할 무렵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여 니느웨 성벽 일부가 무너졌다고 기록됨!
- ②.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겠다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불러주심을 감사!

3.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9-15 절)

- 1) ‘나훔’ 선지자는 앗수르가 무슨 악한 계획을 꾸민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9 절)
 - 9 절,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 참고로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말씀의 의미가 새로워짐!
 - ①. ‘너희’가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 것이라면,
 - a. 유다가 앗수르를 대항코자 무슨 꾀를 쓰든, 결국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하실 것!
 - b. 또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유다가 앗수르에 의해 다시는 핍박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것!
 - ②. ‘너희’가 니느웨 곧 앗수르를 의미한 것이라면,
 - a. 앗수르가 하나님을 대항코자 무슨 꾀를 쓴다한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
 - b. 이때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번에 끝날 것이요, 저들이 다시는 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
 - ⇒ 개인적으로 문맥상으로 볼 때 후자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
=> 새번역 한글성경은 ‘재난이 다시~’를 ‘두 번까지 수고하지도 않으실 것’이라고 번역!
- 2) 선지자 ‘나훔’은 앗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0-11 절)
 - ①. 엉크러진 ‘가시덤불’, ‘출 취한 자들’,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들로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선언! (10 절)
 - ②.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나와 사악한 것을 행하게 함! (11 절)
 - ⇒ 여기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앗수르 왕 산헤립 왕을 가리킨 말로 해석!
 - ⇒ 그는 끊임없이 유다를 무너뜨리고자 계락을 세웠고, B.C.701 년 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며 ‘히스기야’를 위협함!
- 3) 하나님은 앗수르를 반드시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멍애를 벗겨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12 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 ①. 우선 원문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로 시작됨!
 - => 이것은 곧 그동안 어느 누구의 침략도 받아본 적 없는 강대국 앗수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강조하신 것!!
 - ②. 특별히 여기서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앗수르를 사랑의 회초리로 사용하신 것을 의미!
 - => 하나님은 종종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회초리를 사용! 그 순간 우리는 빨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되자!

- 13 절,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 => 앗수르를 심판하심으로 100년 넘게 유다가 짊어진 앗수르의 멍에를 깨뜨려 주시겠다 약속!
 - => 이것은 당시 앗수르로 인해 고통받던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큰 위로와 기쁨의 말씀인 것!
 - => 참고로 하나님께서 북한 동포들이 짊어진 멍에도 빨리 깨뜨려 주시길 기도하자!

- 4) 하나님은 앗수르의 모든 우상을 멸하고, 무덤이 되게 하실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14 절)
 - 14 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 참고로 고고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니느웨의 여신 이스달의 신상이 니느웨의 파괴된 잔해들 속에서 머리가 잘린 채로 발견되었고, 그 사방이 시체들로 가득했다고 증언!
 - ⇒ 그런데 에스겔 32 장 22-23 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심!!

- 5) 끝으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며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고 선포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15 절)
 - 15 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 ①. 우선 아직 앗수르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지만, 멸망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전하는 자가 산위에 있다고 선언해 주심!!
 - =>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2 장 7 절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여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는 장면을 묘사! (신약시대는 복음전도자의 모습으로 묘사)
 - ②. 은혜와 구원의 소식만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바른 삶도 뒤따라야 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음!